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 고발과 그리스도인의 책무

목사의 책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준다. 특별히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실한 분이시다. 100%,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셨다. 구약 성경은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 역사를 보여 준다.

국가가 망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 국민이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사랑한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이다. 사악들이 악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번영한다. 진리를 추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모함과 비난의 대상, 적폐 세력, 수구 꼴통, 이러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사야 대언자의 경고(사5:20-24)

예레미야 대언자의 경고(렘5:1-2)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 뉴스로 인해 의로운 자들을 적폐로 몰고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시11:3, 12:1-2, 그 결과 12:7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방치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 없는 가짜 뉴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각인시켜 악성 여론을 조성한 뒤 패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히 있다.

(\*) 대표적인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년이 되어 간다. 그러면서 그분을 적폐로 몬 가짜 뉴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분이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한다,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며: 활의 노래 블로그

(\*) 2018년 11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졌다', '세월호 7시간 굶판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다' 등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 보도된 30건의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같은 법리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안 의원은 "직접 판단하기 힘들면 이걸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11월 14일 안상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 32건의 작성자와 유포자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하였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광우병 파동, 천안함과 세월호, 사드 관련 가짜 뉴스들도 포함된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포함한 수많은 허위사실이 진실처럼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그 여파로 대통령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음해와 거짓이 판을 쳤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분이 적은 글

처음 태블릿PC 사건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터져 나오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한 심정은, '박근혜 대통령,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준 것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무당 같은 한 여자에 의해 국정이 휘둘렸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여자의 하수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은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은 쏙 들어가고, 남은 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 사건. 그런데 조사 결과, 그분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뇌물은 없다. 아마도 이런 결론,  
 그러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수많은 뉴스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 뉴스들이 가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되었죠?  
 가만히 돌이켜 보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충격적인 거짓 뉴스들을 되짚어봐야겠습니다.

### 가짜 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 보도>,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25가지 정리, 이렇게 기록됨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er=20170223584&nidx=23585>

2016년 9월 미르 재단 및 K 스포츠 재단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최순실 관련 보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신문이나 공중파, 종합편성채널(중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도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섰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소추를 하면서 국회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언론 보도들이었다.

한국이 최순실 사태로 표류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미국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올해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유럽 각국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도 '가짜 뉴스'에 흔들려온 것은 아닐까? 고의적이건 아니건 하루하루 특종과 시청률을 좇으면서 사는 기자들이 생산해 낸 뉴스에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흥분하고 화를 내고 좌절한 것은 아니었을까?

최순실 사태의 와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련 언론 보도들 가운데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본다. 모든 언론이 다룬 기사는 네이버 뉴스, 언론진흥재단카인즈(www.kinds.or.kr) 등을 검색해 가장 앞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를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1.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 발언-YTN
2. 미국대사관, 최태민을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평가-중앙일보
3. 최순득은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경향신문
4. K 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집 사장-전 언론
5.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시사저널
6. ‘건설산업사회진흥재단’은 ‘제3의 미르’-채널A
7. 박근혜,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전 언론
8. 박근혜, 불법 줄기세포 시술-SBS
9. 대통령, 차음 시설 무상 이용... 가명은 ‘길라임’-jtbc
10. 靑, 태반주사 8개월간 150개 구매 / 수술용 혈압계 무더기 구매 / 비아그라에 이어 ‘제2의 프로포폴’까지 구입한 靑-전 언론
11. 주진우, “섹스 관련 테이프 나올 것”-뉴스프로
12. 청와대서 사용하던 마약류가 사라졌다-전 언론
13. 청와대 의약품 대장 속 ‘사모님’은 최씨 자매 중 한 명-전 언론
14. 안민석, “신주평, 공익복무 때 독일서 신혼생활 의혹”-전 언론, 정유라 남편
15.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순방 동행-채널A
16. 경호실이 최순실 경호했다-KBS
17. ‘보안손님’ 차은택과 발모제 의혹-채널A

18. 박근혜,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동아일보
19. 대통령 옷값은 최순실이 냈다-전 언론
20. 박근혜, 평일에도 관저에서 TV 시청-채널A
21. '통일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전 언론
22. 최순실, DMZ 평화공원 사업에도 관여-한겨레
23. 최순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전 언론
24.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巫俗)에 빠졌다-전 언론
25. 美대사관도 촛불 지지?... '1분 소등' 동참-중앙일보

--

2017년 2월 15일, 뉴데일리 “언론의 난, 나라 뒤흔든 오보 톱10”

새해 벽두부터 한국판 '매카시 광풍'이 정치·언론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발한 이후 '여론 재판'으로 특정 인사들의 유죄 여부가 가려지는 '공포정치'가 자행되는 모습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누군가의 행위를 문제 삼으면 일반 시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돌팔매질을 하는 식이다. 이때 언론은 여론몰이의 불쏘시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직접 심판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판관(判官)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언론을 '단두대' 위에 올리려는 이들은 찾기 힘들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 정점(頂點)의 권력을 틀어 쥔 셈이다. 옆에서 "저자가 최순실 부역자다"라고 외치면 그 날로 기자들이 끌어다 목을 친다. 혐의가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 척결 대상이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인물인지만 따진다.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는 이를 '언론의 난(亂)'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 오보 사례를 추려왔다. 요즘 정규재 TV와 펜앤드마이크도 가자 뉴스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다.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보도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없었다면 탄핵을 일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서인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끝낼 일이라라고 나는 생각한다.

펜앤드마이크: '태블릿PC 선동 보도'[언론인] JTBC 손석희(下)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도중 끌어내린 '탄핵 정변'에서 손석희 사장(이하 경칭 생략)의 JTBC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손석희의 JTBC는 2016년 10월 소위 '태블릿PC 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개명후 이름 최서원)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휘둘린 무능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미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 소위 '십상시 프레임' '정윤희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대대적으로 쏟아내면서 박근혜 정부 흠집 내기에 주력했던 대다수 한국 언론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기에 나섰다. 이런 비정상적 비상식적 보도 행태는 좌파 언론은 물론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전통적으로 우파 성향으로 인식되던 언론매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손석희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온갖 종류의 대통령 문건을 받아 수정했다고 기정사실화한 듯한 보도를 끊임없이 내보냈다. JTBC가 만든 프레임에 휘둘린 다른 신문이나 종편들도 가세했다. JTBC의 교묘한 '말장난'과 다른 언론의 '추종 보도' 영향으로 문제의 태블릿PC는 문서를 수정할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도 상당수 국민은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대통령의 문건을 받아 수정하는 등 '국정농단'을 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던 JTBC는 뒤에 자신들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우리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녔다고 했지, 태블릿PC로 문서를 고쳤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했고 문제인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받아들여 당시 JTBC 보도가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태블릿 PC를 가장 정교하게 많이 연구한 변희재씨는 지금 약 6달 동안 구금되어 있다.

JTBC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연락처가 31번이나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대거 삭제된 정황도 새롭게 밝혀졌다.

2018년 11월 7일 오전 1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는 JTBC의 태블릿PC 조작과 위증 의혹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형사고발 기자회견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도태우 변호사와 대구태극기집회 추진단 오영국 대표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JTBC 심수미 기자 등의 명백한 위증 고발하기로 함

(\*) 대통령, 차움 시설 무상 이용... 가명은 '길라임'-jtbc

#### 1. '촛불집회 100만 시민 운집'은 과장 보도

2016년 11월 12일 밤 광화문광장-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촛불 집회(민중총궐기)'에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명이 운집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통신사인 연합뉴스, 기타 주요 방송사와 종편사들도 일제히 "서울 도심에 100만명의 인파가 모여 들었다"면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의 시위가 서울 중심가에서 열렸다고 타전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집계한 참가 인원수는 좀 달랐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약 26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주최 측이 밝힌 규모의 1/4 가량에 불과한 수치.

#### 2. '통일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라니..

앞서 SBS는 "검찰은 '통일 대박'이란 표현이 비선 실제 최순실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SBS 측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던 최씨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딱딱한 말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고쳐줬는데, 통일 대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말은 2013년 6월 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최순실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 (\*) 4.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은 소설

2016년 한 시사지는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최씨가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낳은 아들 김 모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총무 구매팀에서 최소 2014년 말까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 수많은 매체들이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하면서 "최순실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루머는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최순실을 조사한 검찰 관계자는 "재적 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살펴봤지만 아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씨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5. 트럼프가 박대통령·최순실 조롱 연설을?

YT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당시 한 유세 현장에서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공신력이 높은 YTN이 이같은 사실을 타전하자, 다수의 국내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가 '최순실 사태'를 거론하며 여성인 힐러리가 당선되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고 재인용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이날 어떤 유세 현장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빗대 힐러리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6. 대통령과 최순득이 성심여고 동기동창?

조선일보는 지난해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이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8회 동기동창 사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최순실을 '비선실세'로 지목했던 조선일보는 불과 며칠 만에 "동생인 최순실은 언니에 비하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현장 반장'에 불과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숨어 있는 진짜 실세는 동기동창인 최순득"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것도 오보였다. 성심여고는 "성심여고 8회 졸업생(1970년도 졸업) 중에 최순득이라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혹시 당사자가 개명을 했을지도 몰라 8회 졸업생 중 최씨 성을 가진 학생들을 전수 조사했으나 최순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 7. 최순실은 10조원 재산 보유한 무당? 어떤 사람은 심지어 300조 소유

최근 촛불을 치켜든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불만인지를 물었더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샤머니즘'으로 통치해온 국가였다는 사실이 가장 수치스럽고 원통하다"는 말들이 가장 많았다.

일개 민간인이 수년간 국가 기밀 자료를 받아 보고, 인사와 국책 사업에 관여하는 '국정농단'을 일으켰다는 기사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민간인이 하필 '근본도 없는' 무당이였다는 루머가 더욱더 뼈아프게 다가왔다는 얘기.

그러나 최순실 가족은 2000년부터 정통 기독교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 출석해온 크리스천이다. 부친 최태민이 영세교 교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최순실이 최태민의 '영적 후계자'이자 '무당'이라는 풍문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루머에 불과하다.

8. 최순실이 차기전투기 선정에도 개입?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일본 와세다 대학 오오쿠마홀에서 개최한 '애국소년단 토크 콘서트'에서 "(앞으로 최순실 사태와 관련) 섹스 관련 테이프와 마약이 나오고, 대규모 국방 비리가 나올 것"이라는 밀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늘어놨다.

스위스에 박 대통령의 비밀 계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곁들인 주기자의 주장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다수 언론에서 이를 인용 보도하며 루머 확산을 부추겼다.

이중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루머는 단 한 건도 없다.

9. 최순실이 공군 1호기 탑승? 완전 허위 보도

채널A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채널A는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을 봤다" "이전에도 몇 차례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는 얘기를 가감없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 직후 "최순실이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1호기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보안패스가 있어야만 1호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탑승시 70여명의 취재기자 좌석 통로를 지나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완전한 허위 보도"라고 일축했다.

10. 정호성이 매일 밤 최순실에게 청와대 서류를 전달?

한겨레는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정호성 제1부속실장)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받아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보도해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원중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보고서가 30cm가 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발언 당사자인 이성환 사무총장도 검찰 진술 조사에서 "해당 보도는 기자가 추측한 내용을 마치 내가 확인해 준 것처럼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괴담, 특히 세월호 7시간, 지금은 것으로 드러남  
(\* ) 박근혜 대통령 머리, 한겨레 보도

「세월호가 가라앉던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승객 구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 데 90분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의문의 7시간 가운데 1시간30분은 밝혀진 셈이나, 나머지 5시간30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 팀의 수사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겨레의 오보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슬픔과 안타까움은 없이 신속한 대응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치중하는 눈물없는 매몰찬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 보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해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가세한 상당수 다른 언론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

이제 가짜 뉴스 덕을 보며 출발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적인 사람들은 공중파, 종편을 거의 보지 않는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TV를 보면서 사실로 인지하고 있다. 좌파 탈출은 지능 순 여러 개의 유력한 유튜브 채널, 뉴스 등장

가장 좋은 것: 펜앤드마이크,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기사와 사설 등은 기존의 조중동 이상으로 훌륭하다. 또 미디어웍, 미디어워치, 미래한국 그리고 윤서인의 유튜브 등이 있다.

기존 언론의 시정률이 하락하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유튜브 채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공격함

2018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최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한 동영상 104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목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5.18 북한군 침투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이미 논란이 된 것들이 다수다. 삭제 요청한 내용 중 하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전략회의에서 막힌 책상을 넘어갔다"며 이를 '치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다.

아마 시간이 지마면 이런 것들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제 보니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고 걸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어떤 분이 ‘부부공갈단’이라고 불렀다. 좌파들의 파렴치한 행각들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특히 양심의 자유, 자유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북한처럼 되고 만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진실은 무엇인가?

자유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가 답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진다.

가짜는 무엇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답이라는 것, 북한, 중국과 함께 가자는 것, 무상 복지, 의료 등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자유는 믿음과 이념의 투쟁을 통해 지켜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달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리므로 교화로써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順便)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오.”, 사도 바울의 권면(갈5:1)